

◇독자투고...모두가 함께 하는 문학을 위하여

생활속에서 찾는 세계 인식에의 길

I. 문제의 제기

문학이란 무엇인가? 문학이란 선택받은 소수 몇 사람의 전유물인가?
과연 우리는 왜 글을 지으며 읽고 쓰는가? 진정한 문학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가? 또한 문예운동이 전체 변혁 운동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낼 수 있는가?

해야 하는가? 여기서는 초보적인 몇 가지 문제만을 언급하도록 하겠다. 왜냐하면 우리는 초보적인 것을 망각할 때가 너무 많고, 때로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가장 기초적인 부분에서 얻어지기 때문이다.

II. 생활에서 나오는 문학

누구나 문학은 현실로부터 출발한다고 이야기한다. 그럼에도

독점하게 되었다. 여기서 잠깐 교육문제에 잠깐 발기취문의 일부를 '독후'에서 재인용해 보겠다.
진정한 글쓰기는 쓰는 사람의 자기해방의 과정이자 동시에 쓰는 사람과 읽는 사람이 속한 이 땅에서의 글쓰기는 필연적으로 의제와 분단의 사슬에 묶여있는 민족해방의 과정이며 민중을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계급, 계층의 자기해방의 과정이어야 한다. 진정한 글쓰기가 소수의 것이 아닌 대중의 것으로 되돌려져야 하는 필연성이 여기 있구나.

그렇다. 문학은 우리 모두의 것이어야 한다. 누구는 쓰고 누구는 읽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글을 쓰고 모두가 감상을 하여야 한다. 그런데 글을 쓰고 그 권유한 자기는 못한다고도 리질하는 사람이 있다. 솔직한 내용도 없고 쓰는 방법도 모른다 는 것이다. 그러나 자기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일기처럼 답답하게 써보자. 문학은 특수한 사람만이 하는 것이라 생각은 잘난 척하는 몇몇 문학주의자들의 허황된 발상일 뿐이다.

그래서 우리는 가능한 한 직접 체험을 많이 해야 한다. 소위 문학주의자들의 글이 읽기 까다롭고 감동을 주지 못하는 것은 직접 체험이 부족하고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감정을 쓰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아마 진정한 절실한 마음으로 글을 썼다고 주장하고 싶은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의 가난하고 고독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안간힘일 뿐 결코 생활속에서 우러나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청년 예비문학인들이 부족한 것도 이 부분이다. 노동자에게 꿈이 무어나고 물으면 보통 생활과 밀접히 연관된 것만 생각한 나머지 하고 싶다는 대답을 바로 할것이나 지식인은 아마도 모범답안을 만들기 위해 한참 고민할 것이다. 우리가 생활 속에서 창작의 소재를 발굴하려 노력하지 않고 머리 속에서 완벽한 형태와 어떤 것을 찾으려 한다면 항상 비판받아 왔던 추상적이라는 말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III. 실제 창작에서 형상화의 문제

문예창작에 있어 생명은 형상

우리는 글을 쓰는 과정에서 보다 폭넓은 세계를 인식할 수 있으며, 더불어 점차 훌륭한 글도 쓸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질문에 올바른 대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도 의외로 적지 않을 것이다. 사실 우리는 그간의 문예운동의 과정에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왔다. 비록 80년대 하반기부터 서서히 극복되는 양상을 보이고는 있지만 아직도 우리 앞에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이 남아있다.

그 중에서도 핵심적인 것은 다음의 2가지 정도일 것이다. 첫째, 올바른 문예운동관을 정립하고 전파하는 문제이다. 얼마 전 '독후'라는 책에서 자주적 문예운동을 제창한 이후, 앞에서 제기한 문제들을 요구하면서 과학적인 문예운동관을 정립하고자 하는 노력이 시도되었다.

다음으로는 작품창작의 문제이다. 작품창작의 성과가 없는 한 아무리 명쾌한 이론이라도 공문구일 수밖에 없다. 특히 학생 문예운동에 있어 기존의 편향을 극복한 작품을 습사리 접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실정이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이 명제에 충실하지 못한다.

문학이 생활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이해하려면 먼저 문학예술이 세계를 인식하기 위한 유일한 무기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사람은 사유를 통해 주변 세계를 인식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문학도 세계를 인식하는 하나의 방법

현상의 예리한 관찰이 글쓰기의 첫 단계 정치표준 앞세운 젊은문예, 미약한 형상화 극복해야

이다. 단지 문학은 형상사유라는 조금 특수한 과정을 거칠 뿐이다. 사람이 누구나 사유를 하듯이 또한 누구나 형상사유를 운용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문학을 하는 것, 작품을 쓰는 것 자체가 세계를 인식하는 중요한 매개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지배자들의 교묘한 통치논리와 잘못된 문학교육 속에서 문학이란 특수한 것, 뛰어난 영감을 가진 사람만이 쓰는 것으로 인식하게 되었으며, 그 결과 소수의 사람만이 문학을

성실한 삶을 사는 사람이 좋은 글을 쓴다는 말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기존의 잘못된 문학교육으로 인해 조금 서툴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글을 쓰는 과정에서 세계를 보다 폭넓게 인식할 수 있으며 더불어 점차 훌륭한 글을 쓸 수 있을 것이다. 현실은 문예창작의 유일한 원천이며 생활 속에서 나온 작품만이 우리에게 감동을 줄 수 있다. 바로 그것이 문학의 본질적인 영역인 것이다.

하이다. 하나의 작품을 평가하는 기준이 정치표준과 예술표준의 2가지라 할때 이전의 대학생 문예창작이 정치표준만을 살색위 형상화가 미약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것은 앞에서 이야기했던

현상은 문예창작의 유일한 원천이며 생활속에서 나온 작품만이 우리에게 감동을 줄 수 있다

대로 생활에서 나오지 못한 탓이었지만 좀더 구체적으로 어떠한 창작과정을 거쳐야 하는지를 살펴보자.

먼저 하나의 사물, 하나의 동작 그리고 하나하나의 언어를 대할 때 항상 형상적으로 사유하고 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작품이 추상적으로 흐르는 것은 단지 소재의 문제가 아니다. 즉, 소재가 구체적이라고 해서 형상화가 잘 진행되고, 소재가 사랑이나 그리움과 같은 추상적인 것이라고 해서 형상화가 잘 진행되지

문학을 하는 사람은 사회과학 서적을 읽을 때도 화면을 연상하며 읽어야 한다는 말이 있다. 물론 어려운 작업이지만 또 꾸준히 시도해야만 할 작업이기도 하다.

여기서 말한 몇가지가 우리가 많이 고민하는 작품의 추상성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이다. 그러나 이론보다 중요한 것이 실천이라 하듯이 끊임없이 창작을 해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읽기, 쓰기, 생활관 등 쉽게 쓸 수 있는 부분부터 고도의



◇문학은 특수한 사람의 것이 아닌 모두의 것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않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사물을 바라보는 우리의 자세이다. 사물을 예리하게 관찰하고 그것을 그림처럼 머리 속에 새기는 것, 그리고 이러한 작업을 습관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작품의 주인공에 애정을 가지는 것이다. 이러한 주인공에 애정을 가지고 바라보고 그 주인공을 마침내 자기 자신과 일치되게 하려는 노력, 이러한 노력 속에서만 좋은 글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이제 소재를 발굴하고 주인공에 생명을 부여했다면 작품 전체의 흐름을 하나의 단원화면으로 구성해보자.

문학은 논리가 앞서서 것이 아니라 형상이 앞서서 것이다.

조직창작 단계까지 차분히 글을 써 보자.

IV. 맺음말-조직적인 문학회의 운동을 당부하며

위에서 말한 것들은 가장 초보적이고 원칙적인 것이지만 우리 주변을 보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것은 올바른 문예운동관에 입각하여 진행되는 문예조직이 없기 때문이다. 기껏해야 기존의 동인형식과 같은 소모임 뿐이다.

90년도를 전후하여 보다 조직적이고 보다 과학적으로 문예운동을 풀어 나가려는 노력이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다. 여타의 문학을 사랑하는 사람들도 보다 조직적으로 지향점을 실현해 나가기를 당부하며, 마지막으로 나의 한가지 바람만을 적고 마칠 것이다.

문학이 우리 모두의, 4천만 민중 모두의 것이 되었으면 하는 것과 또 보다 많은 사람이 글을 썼으면 하는 것이 그것이다. 그러한 사회는 참으로 아름답고 명랑한 사회가 되지 않을까?

윤 용 민

〈한빛 문학회 회원〉



연우무대를 찾아서

“보기 드물게 창작극만을 고집하며 또 현실의 극작적 투사를 통해 동시대 관객에게 손쉬운 연극을 보여준다...”

연극평론가 안종환이 이렇게 정리한 극단 연우무대, 이름 그대로 '연극하는 친구'들이 모인 대학로의 작은 지하실방은 화장대 밑에 좁은 공간으로, 한쪽 벽에 개스름과 걸려있는 소복에서 연극세계의 밤새를 물씬 풍기고 있었다.

또한 분장대 위의 BBC 마크가 찍힌 마이크를 보며 요즘 창작 공연연인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의 한 장면을 떠올렸다. '새들도...'는 연우무대가 지난 80년대를 정리하고 스스로를 반성하면서 지난 88년 초연에 이어 재공연하고 있는 작품이다. 이 공연이 끝나는대로 오는 9월 경에 새 창작극 '최신생' (가제)을 올린다고 한다.

“연우무대는 우선 순수히 창작극만을고집할 것입니다. 우리의 정서에 맞게 우리 손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원저 번역극은 통조림 같아요.” 극단의 색깔에 대해 묻자 이렇게 말한 단원 류태호씨는 이어 무엇보다 연극으로 말하고 연극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연극을 직접보는 것이 연우무대를 아는 지름길이라고 덧붙였다.

총20~30명의 연극쟁이가 모여 삶의 단면을 뒤쫓아내는 이곳 단원은 주로 주위의 추천으로 채워지며, 하나의 연극을 두 개에 올리기 위해서는 연습단 3개에 걸린다고 한다.

연우무대가 지향한 우리 연극 환경의 가장 큰 문제점은 역시 정부의 지원부족이었다. 철저한 정부의 지원과 극단 스스로의 자기색깔 찾기, 거기에 고정 관객의 확보가 우리 연극의 과제일 것이다. 그래서인지 연극감상문만 보내면 연우무대 회원에 들 수 있다는 데에 더욱 긍정이

울고 웃고 생각할 수 있는 연극을 고민하는 이들, 무엇보다 우리의 사랑과 질책만이 이들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鈴〉



◇ 창작극만을 고집해온 연우무대의 재공연작 '새들도...'의 연습장면

문화단신

서반어학과 주최 제6회 라틴 예술제 열려

제6회 라틴예술제가 서반어학과대학주최로 오는 17일 오후 4시 공대교육관 시청각실에서, 19일 오후 1시 크라운관에서 개최된다.

라틴문화를 배우고, 광범위하게 홍보하기 위한 이번 라틴예술제'는 라틴어를 배우는

단사, 노래패 아르모니아, 원어연극패 '에이프로', 그룹사운드 '프로' 등 서반어학과내의 동아리들이 공연한다.

또한 '한국의국악대 서반어학과 노래패 동아리 어우러짐'이 찬조출연한다.

광항 10주년 기념 소설모음집 '부활의 도시' 발간

도서출판 인동에서 펴낸 '부활의 도시'는 80년대의 출판시장에서 한 획을 그었고 우리

변혁운동에 있어서 핵심으로 부각되었던 광주항쟁 10주년을 맞은 기념작품 소설모음집이다. 수사기관에 끌려가 교문을 받은 유류중으로 고통받았던 남편을 잃은 여인의 하소연을 담은 임철우의 '어떤 녀 두리'를 비롯하여 한승원의 '어둠' 정도상의 '저기 아름다운 꽃한송이' 등 모두 10개의 중·단편으로 엮여져 있으며, 항쟁속에서 투쟁하고 고통받는 민중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값3천8백원)

대로 생활에서 나오지 못한 탓이었지만 좀더 구체적으로 어떠한 창작과정을 거쳐야 하는지를 살펴보자.

먼저 하나의 사물, 하나의 동작 그리고 하나하나의 언어를 대할 때 항상 형상적으로 사유하고 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작품이 추상적으로 흐르는 것은 단지 소재의 문제가 아니다. 즉, 소재가 구체적이라고 해서 형상화가 잘 진행되고, 소재가 사랑이나 그리움과 같은 추상적인 것이라고 해서 형상화가 잘 진행되지

문학을 하는 사람은 사회과학 서적을 읽을 때도 화면을 연상하며 읽어야 한다는 말이 있다. 물론 어려운 작업이지만 또 꾸준히 시도해야만 할 작업이기도 하다.

여기서 말한 몇가지가 우리가 많이 고민하는 작품의 추상성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이다. 그러나 이론보다 중요한 것이 실천이라 하듯이 끊임없이 창작을 해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읽기, 쓰기, 생활관 등 쉽게 쓸 수 있는 부분부터 고도의



것으로 물체의 참모습을 파악할 수 있는가? 일정한 거리에 대상을 놓고 일상적 시각으로, 즉 인간중심의 원근법에 의하여 가까운것은 크게, 먼것은 작게 그리는 이전의 표현개념으로부터 벗어나려 했다.

20세기에 들어오면서 대상이 되는 물체의 참모습을 어떻게하면 진실에 가깝게 그릴 수 있을까 고심하던 끝에, 여러각도에서 시점을 이동시켜가며(시점의 복수화) 파악하려는 새로운 시도가 생겼다. 이는 대상을 표현하려는것이 아니고 인식해 간다는 새로운 방법이었다.

이들은 그리고자하는 물체를 분해(dicomposer)하여 화면구성에 알맞게 조형화시켜가며 재구성(recomposer)하여 그려 갔다.

이것이 물체에 대한 사실(realite)에 접근하는 방법으로 이어져 갔다. 그러므로

일정한 거리를 두어 어느 한 곳에서 대상을 보는

그들은 전통적인 원근법이나 감동적인 색채를 지양하고 사물의 존재를 기하학적 형상으로 구축하여 갔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들은 눈속임그림(Trompe-Loeil)이나 종이붙이기(papier colle), 혹은 천, 나무조각 따위를 붙여(콜라주) 나가기도 하였다.

후기에는 화면도 넓어지고 색채도 풍부해졌으며 화면의 울동도 다이나믹해져 갔다.

이런 그림들을 소위 입체파그림이라고 하는데 이는 20세기 초두(1907-1914)에 파리를 중심으로 일어난 이치주의적 화운동이었다.

입체파(Cubisme)란 이름은 브라크의 '에스타크종경' 연작을 마티스가 '조그만 입체(Cube)의 덩어리'라고 비유한데서 비롯됐다는 설도 있으나 정식명칭으로 쓰여진 것은 시인 아폴리네르에 의해서라고 전해진다. 하여튼 입체파는 20세기초기에 있어서 가장 큰 미술운동으로 후일 불같이 일어난 추상미술의 길을 열어주는 데 큰 공헌을 하였다.

박재호 <사범대 교수-미교과>



우리들의 일과 삶을 가꾸는 소리...

“목동은 논지 말고 농우(農牛)를 보살피라
뜨물에 풀먹이고 이슬 풀 자로 뜯겨
농가월랑이 모심기에 힘을 빌리라...”
그가 뒤를 돌아 한 귀절처럼 5월이 되면,
이 땅의 곳곳에서는 우리들의 일과 삶을
가꾸어가는 소리들로 분주해진다.
이른 아침부터 날이 저물 때까지,
바람이 불면 서로가 서로를 때우면서,
함께 일용할 양식을 매져 가꾸는 건강한 모습들—
농촌에서, 어촌에서, 도시에서...
이렇게 우리 모두가 제몫의 삶을 진솔하게

가꾸어 나간다면, 대지(大地)는 또한
풍성한 수확을 약속하며 스스로를 일구어줄 것입니다.
우리들의 어머니와도 같이 편안하고 포근하게
이 땅의 삶을 감싸안을 것입니다.
그러하여 이 좋은 계절에,
우리들이 대지를 굳게 밟고 설 때,
뿌리고, 가꾸고, 거두고, 나누는 일을 소중히 하는
많은 이들과 함께—

대우가 있습니다.